

I . 서 론

1. UN기구 내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2. 연구 동기
3. 연구 범위 및 방법

I. 서 론

1. UN기구 내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우리나라가 UN (United Nations)에 가입한지 벌써 10여 년이 되었다. UN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한 기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해 오고 있다. 특히 수 년 전에 우리나라가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임되었고, 가끔 UN 분과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등에서 우리나라 대표가 의장으로 활동하며, UN기구 등에 근무하는 한국인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을 보면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특히 1999년 9월 한국에서 21세기 건전한 세계문화를 선도해 나갈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세계총회가 개최된 것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의 변화를 보면, 1970년대까지 국제기구 사업의 수혜국이었으나, 그동안 경제성장의 결과로 1980년대 이후 UN 등 국제기구의 각종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매년 분담금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직접 지원하거나, 인력지원의 형태로 분야별 전문가들을 국제기구에 파견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에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UN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회의에 참가하지만 우리나라 참가자는 국고나 자체예산에서 부담하고 있다. 더욱이 아시아 태평양지역 회의에 있어서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내용이 결의될 때에

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담능력이 판전이 되곤 한다.

일부에서는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활동이 내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부담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최근 각종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 한국의 위상이 매년 달라지고 있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과 국제기구에의 기여를 한 단계 높이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외교분야와 함께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된다고 본다.

2. 연구 동기

필자는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이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채택되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청소년 정책을 담당했었다. 또한, 정부 공무원으로서 지난 3년간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에 근무해 오면서 우리나라 청소년 분야의 국제기구 참여활동이 너무 소홀하고 **이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바, 최근 한국 청소년개발원장으로부터 제안이 있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1991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 정부정책인 ‘한국 청소년 기본계획’ 작성에 참여하고 그 후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청소년기본법’ 제정을 담당하게 되면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과 설명자료 등을 작성하고 공청회, 관계부처와의 협의, 관계기관 및 언론사 등과의 보고

및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사무관으로 겪은 어려움은 당사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것이었다¹⁾. 그 후 1993년 8월,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지역기구인 ASEAN과 UN을 비롯한 미국, 일본, 우리나라, 태국 등 여러 나라가 협력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AIT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유학한 후에도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청소년 보호위원회’ 발족을 담당하는 것은 평생 기억될, 매우 보람된 일이라 생각된다.

최근 ESCAP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도 청소년업무가 내 본연의 일이라는 생각은 늘 떠나지 않고 있었으며, 그동안 정부차원에서의 청소년정책 담당자도 많지 않았거니와 특히 국제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전무했으므로 청소년업무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청소년업무 및 국제기구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 관련 UN기구의 활동을 정리하여 소개해 우리나라 청소년분야가 세계무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틈틈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글을 쓰게된 동기를 보다 현실적,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자서전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청소년에게 유익한

1) 이런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자료들이 모두 합쳐 4톤 트럭분에 이르렀다면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 또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는 국제기구, 정부간 기구, 청소년단체, NGO 등 많다. 국제기구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활동이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이 방대한 활동을 여기에 모두 소개하는 것은 무리이며, 필자가 UN기구에서 근무한 만큼 여기서는 UN본부 및 ESCAP의 청소년관련 활동과 아울러 UN산하 기타 주요 청소년관련 기구의 활동을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가 ESCAP에 근무하면서 이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최신의 자료를 접하기가 수월하였으며, 현장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담당자와 면담 및 토론회,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필자의 주관적인 해석은 가능한 피하였다. 즉, 이 연구가 **현장중심의 최신자료 수집과 객관적인 자료의 분석 및 직접적인 체험에 근거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적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II. 청소년 관련 주요 UN기구 활동내용

1. 주요 UN기구의 청소년 관련활동
2. UN기구 청소년 업무의 특징

II. 청소년 관련 주요 UN기구 활동내용

1. 주요 UN기구의 청소년 관련활동

1) UN 본부

(1) 연 혁

1946년 UN본부(뉴욕)에서 청소년분야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7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UN사무소인 CSDHA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ffairs)로 통합되었다가 UN총회에서 1985년을 ‘세계 청소년의 해’로 선언, 주제를 ‘참여, 발전 및 평화’로 정하고 청소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기금’이 조성되면서 청소년분야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졌다. 그 후 1993년에 청소년업무가 뉴욕본부로 다시 환원됨으로써 UN의 여타 관련 분야와의 협력이 보다 원활해지게 된다.

1995년에는 UN의 주요 활동계획으로 ‘United Nations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이 채택되고 ‘UN 청소년 정보망 (United Nations Youth Information Network)’이 구축되었으며, UN본부의 ‘경제사회국’내 ‘사회정책 및 개발과’의 ‘청소년계’에서 (Youth Unit, Division for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이들 사업을 추진할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UN의 활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1998년에는 '세계 청소년업무 담당장관회의 (World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가 창설되고 청소년계에서 또한 사무국의 역할을 겸하게 됨으로써 UN이 국제기구 등의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통합하고 주도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중추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2) 정책의 방향 및 이념(Mission)

UN 본부의 청소년 정책방향은 지난 1995년 '세계 청소년의 해' 10주년을 기념하여 채택한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와 1998년 8월 2일부터 7일까지 세계 150개국의 청소년 리더, 청소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포르투갈의 브라가에서 열린 '제3회 UN 세계 청소년 포럼'에서 채택된 'Braga Youth Action Plan', 1998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58개국 청소년업무 담당장관,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대표 등 800 여명이 참석, 리스본에서 열린 '제1회 청소년 업무 담당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을 '빈곤퇴치를 위한 기간 (First United Decade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 1997-2006)'으로 정하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UN본부가 지향하는 정책분야를 살펴보면,

가)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

◆ 교육, 고용, 기아 및 빈곤, 건강, 환경, 마약, 청소년비행, 여가활동, 여성 청소년, 사회생활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청

소년들의 참여 등 10개 주요 정책분야

나) Braga Youth Action Plan

- ◆ 청소년정책 : 청소년 정책분야간 통합, 국가내 청소년업무 관련 NGO간 협력, 빈곤추방 및 청소년개발
- ◆ 청소년참여 : 모든 청소년들의 참여, 청소년조직과 UN기구, 21세기를 대비한 교육, 사회개발을 위한 청소년고용, 건강과 청소년 개발
- ◆ 청소년과 인권 : 인권증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청소년 권리현장과 청소년인권에 관한 특별보고

다) 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

- ◆ 국가 청소년정책
- ◆ 청소년참여
- ◆ 청소년개발
- ◆ 청소년과 평화
- ◆ 청소년교육
- ◆ 청소년고용
- ◆ 청소년건강
- ◆ 마약과 약물남용

이들 선언이 UN본부 청소년분야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내용일 뿐 아니라, UN본부의 청소년기금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이는 최근 2000년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디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1회 아프리카 UN 청소년포럼'에서 채택된 '아프리카 청소년선언

(Africa Youth Declaration)'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이 선언문들이 표명하는 주요 정책분야가 지향하는 이념(Mission)을 UN에서는 '4대 이념'으로 요약하고 있는 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처한 범세계적인 상황에 대한 인류의 의식고양과 함께 청소년 자신들의 권리 및 포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둘째, 청소년관련 정부기관 및 NGO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셋째, 사회생활과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 시키며,

넷째, 청소년들에게 평화에 대한 이념을 심어주고, 상호존중 및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3) 주요 업무내용

가) 청소년관련 정부기관, NGO 및 정부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의제에 관한 UN총회의 선언문 등을 작성하고,

나) 청소년관련 정책보고서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를 매 2년마다 작성하여 경제사회이사회를 거쳐 UN총회에 제출하며,

다) 자료발간 업무로써 'Youth Information Bulletin'을 연간 2-3회 발간하고, 'The World Youth News'를 1997년 1월부터 발

행하기 시작하여 2000년 6월 현재 제21호를 발간하였으며, 수시로 청소년관련 각종보고서, 홍보자료, 포스터 등을 제작한다.

라) UN 회원국의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망(Information Data Base)을 관리하고, 청소년에 관한 World Wide Web을 운영하고 있으며 (<http://www.un.org/esa/socdev/unyin.htm> 및 youth@un.org),

마) 청소년 관계기관 회의(Inter-Agency Meetings on Youth)를 매년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년 관련 NGO 회의(You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Meetings)를 개최하며, ESCAP과 같은 지역 총회(Youth Meetings of the Regional Commission of United Nations)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지역 청소년업무 담당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바) 185개 UN회원국의 ‘청소년업무 담당장관회의’(World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 및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리더와 청소년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세계 청소년 포럼(World Youth Forum)’을 격년으로 개최한다.

사) 대학, NGO,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 전문가 과정, 청소년 Interns, 대학생 청소년 자원봉사자훈련을 추진하고,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리더십 훈련교재를 개발하고 이들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아) ‘UN청소년기금 (United Nations Youth Fund)’을 운영함

으로써 UN의 청소년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청소년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4) 인력 및 예산

이들 청소년관련 업무는 Mr. William D. Angel 계장 (Unit Chief)이 총괄하고 있으며, 그 아래 3명의 전문가와 1명의 업무비서가 있다. 또한 청소년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간 약 US\$1,500,000의 정규예산 (Regular Budget)이 집행되고 있으며, 1985년 청소년 기금이 조성된 이후 약 US\$600,000이 청소년 관련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5) 관련 협력기관

- ◆ 국가별 청소년관련 기관: 3,000여개
- ◆ 국가간 청소년교류 및 활동관련 기관: 100여개
- ◆ 기타 주요 관련국제기구
 - NGO Committee on Youth, New York
 - Geneva Informal Meeting of International Youth NGOS, Geneva
 - UNESCO Collective Consultation of Youth NGOS, Paris
 - The Standing Committee on Youth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Bangkok
 -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Youth NGO Meetings

(6) 우리나라와의 관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1991년 ‘청소년 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활성화되었으나 UN 본부와는 연계가 되지 못하였으며, 청소년단체협의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관련 사업과 활동이 부분적으로 알려져 온 실정이었다. 그러나 1999년 9월 UN본부 청소년 담당계장(Unit Chief)인 Mr. William D. Angel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국청소년개발원을 예방해 한국의 청소년분야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장차 우리나라와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7) 한계 및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UN본부의 청소년계 주관으로 ‘청소년 업무담당 장관회의’와 ‘세계 청소년토론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관련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세계 청소년문제의 다양성 및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 UN내 청소년계의 조직과 예산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청소년의 주요 이슈별 전문가를 확보하여 많은 회원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문제에 대한 자문과 아울러 과제별 연구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할 ‘UN 청소년기금’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물론, UN개혁(UN Reform)이 UN내에서 주요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인원과 예산을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회원국의 절실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국제기구 존립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관련 모든 기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이다. 185개 회원국마다 겪고 있는 청소년문제가 다르고 이에 대한 처방도 같을 수 없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000여 개가 넘는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 NGO들이 상호 지향하는 방향과 이해관계가 매우 달라 이들 관련 기관과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절히 조율함으로써 모두가 수긍하는 공통분모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셋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이끌어 나가는 문제이다. 이들은 대부분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전문분야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요 정책방향을 통합하며 이끌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ESCAP

(1) 연 혁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사회이사회 즉,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은 UN산하 지역기

구중의 하나로서, 1947년 설립되어 현재 태국(방콕)에 소재하고 있으며, 1970년 이후 사회 및 경제분야의 발전이 대부분 국가들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면서부터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현재는 UN산하 5개 지역기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활동이 활발하며, 60여 개 회원국의 지원아래 600여명의 전문직원과 업무담당 비서직원을 비롯한 컨설턴트, 자원봉사자, 인턴직원 등이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청소년(UN분류에 의한 15세부터 24세까지)의 약 60퍼센트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들의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감안하면 장차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의 성공이 전세계 청소년활동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ESCAP내에서 청소년업무가 아직 별도의 조직으로 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개발국’의 ‘인력자원개발과’ 내에서 업무의 성격별로 여러명의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한 때는 일본정부에서 청소년분야 전문직원을 파견하였으나 재정악화를 이유로 수 년 전에 직원 파견을 중단한 이래 현재는 청소년업무만 전담하는 별도의 직원은 없다. 다만, 이들이 장기간의 업무경험과 팀워크 바탕으로 업무를 매우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사업비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의 재정지원 아래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ESCAP 모든 부서 대부분의 사업과 활동이 회원국의 사회 및 경제분야의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청소년사업과 관련이 있으나 여기서는 해당 부서의 직접적인 사업과 활동만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최근의 청소년관련 주요회의 및 관심분야

1998년 개최된 '제3회 UN 세계 청소년포럼'을 위한 지역회의로서 1998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청소년 단체 회의 (Asia-Pacific Meetings of Youth Organizations)'가 ESCAP과 UNESCO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강대근 사업본부장이 워킹그룹미팅과 토론에 참석하여 청소년 사업에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활동을 하였다.

또한, '제1회 청소년업무 담당 장관회의'를 대비한 지역회의로서 1998년 6월1일부터 5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청소년개발을 위한 정부간 회의 (Second Asia-Pacific Inter-Governmental Meeting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Youth)'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박금렬 과장 (당시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1995년 UN본부에서 결의된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의 10대 주요과제 중에서 ESCAP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청소년교육, 고용, 건강 및 효과적인 참여 등의 4분야가 주요 정책분야로 채택되었고, 특별의제로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성학대 및 상업적 성 착취가 지역의 주요문제로 채택되었다.

청소년관련 4대 주요정책분야에 대한 지역청소년들의 실정과 대처방안, 정책제언 등이 1998년 ESCAP에서 발간한 'Asia and the Pacific into the Twenty Century: Prospects for Social Development'에 매우 잘 정리되어 있는 데, 이 책은 아시아 태평

양지역 사회개발분야의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전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현상과 함께 청소년문제를 다룸으로써 매우 우수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에 소개된 4대 분야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교육

◆ 모든 어린이들의 초등교육 기회보장 : 대부분의 나라가 헌법 또는 법률로 국민들의 초등교육을 보장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취학비율이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푸아 뉴기니아 등의 국가에서는 특히 여자어린이들의 취학비율이 50퍼센트를 밑돌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아래 취학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문맹을 저하 :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경우 문맹율이 15퍼센트 내외에 불과하나,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의 경우 아직 50퍼센트를 상회하므로, 이들 국가에서 문맹 퇴치를 위한 야학과 비정규교육을 강화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교육의 질 보장 : 교육시설과 교사의 자질향상 등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정부의 능력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교육기관의 설립을 적극 권장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다.

나) 청소년고용

◆ 청소년실업에 대처 : 청소년들의 노동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빈곤퇴치와 청소년 개발차원에서 적령에 도달한 청소년들의 취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청소년실업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에서 직업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을 고용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 어린이 및 청소년 노동착취 : 많은 나라의 작업장에서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과도한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상해를 입고 나아가서는 질병과 죽음에 이르는 사례를 방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서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근로금지, 청소년들을 매춘 또는 성적 음란물 제작에 활용하거나 마약거래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해 나감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노동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방안이 권고되었다.

다) 청소년건강

◆ 조기결혼 및 임신에 따른 어린 소녀의 건강침해 : 아직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에서는 여자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신체성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나 낙태를 함으로써 어린 소녀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또 평생 이로 인하여 고생하는 예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함께

최근 이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혼전(외) 임신 및 낙태에 따른 산모들의 건강이 또한 이슈가 되고 있다.

◆ 성 학대 및 착취에 따른 건강침해 : 성 학대 (강간, 근친상간)사태가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성 착취(원조교제, 성적 음란물 제작, 매춘)는 일본, 태국, 필리핀 등 많은 ESCAP 회원국에서 만연하고 있는데, 사회제도적, 법적 차원의 보완과 함께 성인들의 지속적인 계도 및 영업행위 단속을 통하여 이를 시정해 나감과 동시에 친구들을 통한 성교육과 성 상담 (Peer Education and Counselling)을 도입,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성병 및 AIDS예방 : 문란한 성행위를 비롯하여 비정상적인 성 접촉으로 야기되는 많은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권고되었다.

라) 청소년의 사회참여

◆ 효과적인 사회참여 방안 : 사회의 발전은 청소년의 의무와 기여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각종 개발계획 등 장기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 등 모든 분야의 발전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청소년정책 : 미래와 함께 현재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능력을 최고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처한 문제와 그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국가, 학교, 지역사회의 모든 단계에서 청소년리더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청소년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적령에 도달한 청소년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 청소년단체와 NGO활동에의 참여 : 청소년들이 리더쉽을 키우고 참을성을 배우며 청소년 상호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NGO들의 현재 협력구조를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3) 주요 사업내용

가) 지역총회 (Commission) 및 분야별위원회 (Committee)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

매년 4-5월경에 ESCAP 회원국 정부 고위관료가 참석하는 지역총회(Commission)가 방콕소재 ESCAP 회의장에서 열리며, 여기에서 매년 사업계획과 주요 추진방침이 회원국들로부터 승인된다. 또한,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분야별 증견 간부들의 회의인 분야별위원회(Committee)가 전년도 11월을 전후하여 개최되며, 그간 분야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등이 이 위원회에 보고된다.

나) 청소년관련 각종 연구 및 발간사업

청소년에 관한 기초 자료조사를 비롯하여 당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UN본부의 권고에 의한 청소년사업의 주요 이슈 등 광범위하게 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여 제안서(Project Proposal)를 우선 작성하여 ESCAP 내부의 의사결정단계를 거쳐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되면, 이를 추진할 세부내용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계획서(Project Document)를 작성하게 된다.

그 후, 자체사업비에서 지원받을 사업은 UN본부로 보내지고 외부 지원 기금에서 충당할 사업은 기금을 관리하는 국가의 해당 부서로 보내진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매년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내용에 따라 주로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컨설턴트로 임명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세미나 등에서 관련국가 대표의 참석하에 보고하게 된다.

ESCAP의 청소년 분야는 그동안 청소년교육, 근로, 성 확대 및 남용, 청소년 비행 및 예방 등 주요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왔다. 또한 'ESCAP HRD Newsletter'를 매년 2-3회 발간하여 오고 있으며 2000년까지 통산 15호를 발간했다. 매년 청소년관련 지역세미나를 3-4회 개최하고 수시로 단기연수과정(1-2주)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경비는 자체 사업비 외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에서 ESCAP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기금에서 충당되어진다.

다) ESCAP 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Award

ESCAP에서 1990년 이후 매년 주제를 설정하여 인력자원개발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상장과 US\$30,000을 부상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이는 호주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분야가 주제로 선정된 경우는 두 번 있었다. 1995년의 'Employment for Youth'를 주제로 인도 Barefoot College의 Social Work and Research Centre에서, 1999년에는 'Youth Empowerment'에 공헌한 중국 All-China Youth Federation에서 수상하였다.

라) 저개발국 지원사업

ESCAP 회원국 중에서 베트남, 라오스, 중국, 몽고,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최근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거나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Transit Economy) 또는 저개발국가(Developing Country)의 특정분야가 다른 회원국에 비해서 사회발전의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단기간 파견하여 지원하거나 ESCAP에서 해당국가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회의(National Seminar)를 개최하기도 한다. 필요시 해당국가에 전문가를 출장시켜 단기연수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4) 우리나라와의 관계

ESCAP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UN의 지역기구인 만큼 이는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가장 1차

적인 국제기구이다. 초기부터 우리나라는 외교 및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과 참여가 상당히 활발하였으며, 1980년경부터 통상, 기술개발, 교통 및 해양분야까지 중앙정부 과장급의 장기파견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필자는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97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ESCAP에 근무했는데 그 전까지 우리나라 사회문화분야의 ESCAP 활동에의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나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총회(Commission)나 분야별위원회(Committee)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으나, 청소년분야는 한번도 이러한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적이 없으며 현지대사관의 국제기구 담당서기관이 참석하여 해당부처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청소년분야의 경우는, 필요시 전문가세미나에 민간기관의 전문가가 초대되거나 일부 연구사업에 한국의 전문가가 컨설턴트로 참여한 정도이다.

(5) 한계 및 문제점

ESCAP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UN의 지역기구이며, 전세계 청소년의 60퍼센트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정규직원으로 청소년업무 전문가가 한 명도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문분야 연구를 전문컨설턴트를 임명하여 수행하고는 있으나 적어도 수명의 청소년분야 전문가를 자체직원으로 확보하여 연구의 내실을 기하고 각 회원국의 실정과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또한, ESCAP내 다른 부서나 UNESCO, ILO, FAO 등 관련 국제기구의 아시아 태평양지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활동이 매우 활발하나 상호간 전혀 사전 조율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속히 이러한 사업이 종합되고 상호 협력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기타 청소년관련 주요 국제기구

(1) UNESCO

가) 개 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즉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은 1945년 11월 16일 창설되어 현재 188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청소년관련 사업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기구중의 하나이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이 기구는 60개 지역사무소(Field Offices) 및 180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를 운영하고 있는 방대한 조직이다. UNESCO는 이러한 거대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교육향상, 과학기술의 보급,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등의 분야에서 연구사업, 발간사업, 회의개최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00년을 '세계 평화문화의 해', 2001년을 '세계 자원활동자의 해'로 정하고 이와 관련한 많은 행사 및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는 방콕에 소재한 주 사무소(Principal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Pacific)를 비롯해 13개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1954년 1월 30일 설립되어 교육 및 문화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위원회로 손꼽히고 있다. 1963년에는 정부에서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특히 1977년에는 산하에 '유네스코 청년원(경기도 덕평소재)'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의 야영 및 수련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분야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현재는 한국청년해외봉사단(KOICA)이 외교통상부 산하에 설치되어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원봉사 또는 분야별 전문가 파견 형태로 아시아의 오지를 비롯한 저개발국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태동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처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 목적을 높이지 않고,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단체활동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다.

나) 청소년관련 정책방향 및 주요 활동내역

특히, 1996년에서 2001년까지 청소년분야가 여성, 저개발국, 아프리카와 함께 UNESCO의 4대 역점분야의 하나로 선정되어 지구촌 구석구석의 청소년들까지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세부 분야별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 평등교육, 예방교육(성교육, 약물 예방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신체교육과 운동
- ◆ 개발수단으로서의 과학 : 자연과학 (전달과 공유, 환경오염 방지, 신기술), 인문사회과학 (연구, 정책, 인권, 민주주의와 평화)
- ◆ 문화유산의 창의적 개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창의와 문화적 표현
- ◆ 정보전달 : 신기술 활용, 정보전달교육, 교육수단으로 매체 활용
- ◆ 평화로운 문화조성 : 비폭력적 갈등해소,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 ◆ 청소년리더의 교육을 통한 21세기 준비 : 인권교육, 예방교육, 체육활동, 환경보전과 관리, 생동적인 사회문화, 문화유산 보존, 청소년 미디어 운영, 비폭력적 갈등해소, 남녀평등

이러한 정책방향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관련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교육, 과학 및 문화진흥을 위한 국제회의/세미나 개최 : 최근 개최된 주요 회의는 1999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프

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어린이 의회'와 1999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 기술 및 직업 교육에 관한 회의 (주제: 평생교육 및 훈련 - 미래로 가는 길)'를 들 수 있다. 또한 2000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세네갈에서 '세계 교육포럼'이 열렸다.

- ◆ '세계 청소년정보망 (INFOYOUTH)' 운영 : 회원국들의 전산망과 연결하여 국가별 청소년에 관한 통계 및 일반 정보 자료, 청소년정책, 청소년활동이 매우 잘 소개되고 있다.
- ◆ 발간사업 : 각종 연구결과 및 회의자료 등을 수시로 발간하고, 'INFOYOUTH Bulletin'을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 ◆ 기타 문화교류, 청소년야영,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와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UNICEF

유엔아동기금, 즉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는 1946년 12월 11일, 제2차 세계대전 후 당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유럽과 중국의 어린이들을 긴급히 돕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1950년 이후 모든 개발도상국으로 그 사업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5,000여명의 직원이 8개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144개 개발도상국에 대표사무소(UNICEF Field Office)를 두고 어린이 구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8개 선진국에 국가별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UNICEF)를 두어

사업추진을 위한 모금 및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1989년 11월 20일 어린이 권리헌장(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고, 영아에서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전쟁 및 천재지변이 일어난 나라 어린이들의 긴급구호사업, 영양실조가 만성화된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양공급사업,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인 6대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식수 및 위생 사업, '전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초등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업비로 1998년의 경우 US\$882 million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업결과를 토대로 매년 세계 어린이들의 상황(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과 이와 관련한 국가들의 진전 상황(The Progress of Nations) 및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분야의 특징적인 사업으로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청소년의 목소리(Voices of Youth)'라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 청소년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UNICEF는 1950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6.25전쟁 전후 한국어린이들의 긴급구호를 위해 영양개선, 예방접종, 의료요원훈련, 교육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1993년까지 US\$23million을 지원하였다. 1994년부터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유니세프 대표사무소'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 바뀌어 현재는 개발도상국과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를 돕기 위한 기금모금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초·중등학교 특활프로그램인 '지구촌클럽', 대학생 자원봉

사 단체인 ‘Youth Club’, 어린이 예방접종을 위한 캠페인, 영어보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영화배우 안성기씨와 소설가 박완서씨를 한국위원회 친선대사로 임명하여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를 방문·지원한 적이 있다.

(3) UNDP

유엔개발기구,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는 UN조직 내에서 가장 큰 기구로서, 1965년에 설립되어 5,300여명의 직원이 뉴욕본부와 132개 국가사무소에서 170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UN기구이며 그간 우리나라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지속적인 인력개발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을 기구의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 및 관련 UN기구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공공인력개발, 환경자원 및 식량확보, 빈곤퇴치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청소년분야와의 관련성이 매우 많은 기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교육, 건강 및 고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가난한 청소년들을 주요한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UNIFEM(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과 UNCDF(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등과 같은 기금을 조성하기도 하고 UNV(United Nations Volunteers) 사업을 지원하는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정보산업을 통한 개발차원에서 INFO21(Inform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Programme)을 개설하여 이집트에 Technology Access Community Centre

(TACCs)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2000년 3월에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2회 Global Knowledge Conference에서 Global Action Plan을 채택한 바 있다.

(4) UNEP

유엔 환경기구, 즉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전세계에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구의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NGO 등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홍보 및 각종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매년 환경관련 국제회의와 지역회의를 여러차례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와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활동에 20여년전 부터 꾸준히 관여해오고 있다.

금년에는 9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아일랜드의 더블린 케슬에서 'Global Conference on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이란 제목으로 'INFOTERRA 2000'회의가 177개국의 정부와 민간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6년 터키 이스탄불, 1998년 중국 상하이에서 'Urban Environment Forum'가 개최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격년으로 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 조장하고 있는 바, 격년으로 '세계 청소년 환경포럼(Global Youth Forum on the Environment)'을 개최하고 '전세계 청소년 환경관련 모임 네트워크(Network of Youth Environmental

Groups Worldwide)’을 운영함으로써 UNEP활동에 청소년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즉, 청소년 스스로가 지역사회에서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시킬 목적으로 ‘지역청소년 환경포럼 (Regional Youth Forums on the Environment)’을 개최하고 환경문제를 언론을 통하여 이슈화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해 간다는 차원에서 젊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가장 우수한 청소년 환경보호 활동사례를 모아 ‘미래를 위한 청소년의 활동 (Young Action for the Future)’을 발간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청소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자문할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 자문단 (Regional Youth Advisors)’을 임명하는 등 청소년을 통한 환경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5) UNFPA

유엔인구기금, 즉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는 1969년 개발도상국의 임산부 건강과 가족계획을 지원하고 인구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립되어 현재 160여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1969년 이후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US\$4.3billion이 소요되었으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 20여 국가에서 이를 후원하고 있다.

1999년 UN 사무총장이 세계인구 60억명 돌파를 기념하여 이를 온 세계에 공표함으로써 세계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지만, UNFPA는 2050년 세계인구를 최대 110억명 최소 78억명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인구증가가 가져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려

는 목표아래 ‘인구와 환경(Population and Environment)’을 주요 이슈로 내세우고 빈곤척결, 인류의 건강증진, 여성개발,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속적인 개발, NGO와의 협력, 교육 및 훈련의 진흥, 개발도상국의 능력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 국제기구간 협력증진, 이를 위한 재정확보를 정책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평생을 위한 준비(Young: Preparing for Life)’라는 슬로건아래 청소년들의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청소년기의 성과 임산부의 건강, 청소년 교육에의 투자증진을 호소하고 있다.

(6) UNAIDS

1990년대 들어서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던 HIV/AIDS 문제를 UN차원에서 대처하고자 HIV확산방지 및 감염자 지원을 목표로 1996년 UN산하 6개 기구인 UNICEF, UNDP, UNFPA, UNESCO, WHO와 World Bank가 연합하여 설립하였으며, 1999년에는 UNDCP도 함께 협력하게 되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200여명의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1999년 4월 155개 국가를 커버하는 132개 ‘HIV/AIDS Theme Groups’을 구성함으로써 전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의 주된 활동분야로 청소년, 섹스산업 종사자, 태아전염 예방, 예방백신 개발 등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식통계에 의하면, 감염자 수가 1000여 명에 불과하나 태국의 경우는 1백만명을 헤아리고 있으며 이들이 구성한 단체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압력단체로 역할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와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는 문란하고 난잡한

성 관계로 인하여 감염자수가 점점 확대일로에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UNAIDS에서는 많은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협력을 얻고자 많은 국제회의와 전문가 심포지움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최근의 중요한 회의로는 1999년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AIDS에 관한 국제회의’와 2000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한 세기 (A Century of Health for the Children)’라는 주제로 열린 전문가 세미나를 들 수 있다.

(7) UNDCP

1990년대 마약 상습복용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약 0.14 퍼센트인 8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아편의 양이 연간 230톤이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양은 이의 1.5배가 넘는 380 톤으로 추산되며, 불법 마약거래 수입이 국제 무역거래의 8 퍼센트 규모인 US\$400billion에 이른다. 이러한 마약밀매와 무기 밀수 등으로 이루어지는 지하경제 규모가 약 US\$ 500billion 이며, 이는 사람들의 건강에만 치명적인 타격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범죄의 원인이 되며 또한 국제 경제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UN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 고자 마약 통제, 범죄예방 및 국제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United Nations Drug Control Programme (UNDCP)이 설립되었으며 UN 조직 중에서는 최근에 설립된 기관으로 규모도 작은 편이나, 각 분

야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마약이 매우 엄격히 관리되므로 아직은 심각한 사회문제는 아니며, 청소년의 경우에도 본드흡입 정도의 수준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마약의 주산지인 중국, 태국, 미얀마와 그 인근 국가들은 상당히 심각하다.

태국의 경우 마약 산지인 북부 지방은 물론이고 태국 전역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1999년 태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 고등학생의 5퍼센트가 마약을 거래해 본 경험이 있으며 장거리 트럭 운전자의 30 퍼센트가 '암페타민'이라는 마약의 일종인 환각제를 상습복용한다는 결과가 나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러한 마약거래 및 상습복용은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경찰과 검찰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지역은 태국과 홍콩에 미국 마약 감시반이 상주하며 현지 전담인력과 협력하여 거래루트를 차단하는 한편, UNDCP를 통한 마약의 폐해홍보, 마약상습자의 격리 및 재활활동에 힘쓰고 있다. 또한 최근 30대 이하 청소년층의 마약복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AIDS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UNDCP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와 재활, 갱생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8) UNIFEM

여성을 위한 유엔개발기금, 즉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은 남녀평등, 여성의 권리, 기회 및

능력신장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능력개발을 목표로 설치되었으며, 특히 젊은여성의 리더쉽 개발에 역점을 두고 여성의 경제력 강화, 여성의 리더쉽 함양, 여성권리 신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 UNV

유엔 자원봉사 프로그램, 즉 United Nations Volunteer Programme (UNV)은 1970년 UN총회의 결의에 의거 시작되었으며, UNDP 국가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UNDP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매년 140여 개국에서 4,000여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개발도상국의 정부 또는 지역단위의 기술,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봉사영역은 도시개발, 청소년,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이며, 1971년 이후 20,000여명이 봉사해 왔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UNDP에 ‘특별기금 (Special Voluntary Fund)’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봉사하기 위해서는 대학졸업후 5년이상 해당분야의 경험을 갖추고 영어 등의 언어능력이 있는 25세 이상으로 국가별 UNDP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파견되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경비가 지원된다.

(10) ILO

국제노동기구, 즉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노동자의 권리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가진 기구이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1900여 명의 직원이 본부와 40개 지역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600여명의 전문인력이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세계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는 작업장에서의 근로기준, 근로자의 권리, 고용증진, 사회보장, 대화를 통한 분쟁의 해결 등이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사무소를 방콕에 두고 있는 데, 청소년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미성년의 근로착취 내지는 근로조건 향상, 임금에서의 차별 금지가 주요 이슈이다. 최근, ‘어린이들의 노동에 관한 아시아지역 고위 대표 회의’가 2000년 3월 3일 일본에 이어서 3월 8부터 10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연석으로 열렸으며 한국대표도 참가하여 우리나라 미성년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내용도 함께 논의되었다.

(11)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즉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1945년에 창설되어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4,300 여명의 직원이 본부와 지역사무소 등에서 일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사무소를 방콕에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림부에서 과장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분야의 정책방향은 1996년 11월 로마에서 130여개 국가 대표 500여명이 참가하여 개최된 ‘세계 식량회의를 위한 국제 청소년포럼 (The International Youth Forum for the World Food Summit)’에서 채택된 ‘국제 청소년포럼 선언문 (Declaration of the International Youth Forum)’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Youth Against Hunger’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농촌청소년 (Rural Youth)을 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점 추진사업으로 ‘Rural Youth and Food Security’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3개 요소로 전략적 계획수립 (Strategic Planning), 훈련(Training) 및 교육적 디자인 (Educational Design)을 들고 있다. 또한 농촌 청소년들의 ‘이농향도현상’을 농촌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 및 훈련, 노동기회 보장, 의료지원, 자질개발과 존중을 제시하고 있다.

(12) WHO

세계보건기구, 즉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은 오랜 기간 동안 전염병 예방 및 인류의 건강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구중의 하나이다. 1830년 당시 치명적인 전염병인 콜레라가 유럽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이후,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국제기구의 설립이 여러차례 논의되었으나 이해의 차이로 미국, 유럽 등 지역기구만 운영되다가 1948년에 정식으로 WHO가 설립되었다. 또한 1987년에는 AIDS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1993년에는 UNICEF,

UNDP, World Bank 및 록펠러 재단과 공동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하였다.

매년 5월 WHO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제네바에서 전 회원국의 참석하에 총회가 열리며 여기에서 모든 사업계획 등이 승인된다. 본부와 6개 지역사무소 또는 현지사무소에서 3800 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인도 뉴델리에 아시아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주요 사업대상으로 각종질병(전염성, 비전염성, 열대성, 예방접종으로 예방가능한 질병), 환경, 가족과 임산부건강, 건강정책 및 통계, 건강관련 기술 및 라이프 스타일을 들고 있다.

매년 4월 7일을 세계보건의 날로 정하고 매년 건강에 관한 다른 주제를 천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2000년 세계보건의 날' 주제를 'Blood Saves Lives: Safe blood starts with me'로 정함으로써 혈액의 중요성과 혈액의 신중한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2000년의 특별 주제로서 'Every child counts' 라는 기치 아래 소아마비 완전박멸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염병에 대한 연간 보고서' 등 많은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통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 UN기구 청소년 업무의 특징

가. 수많은 관련기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UN기구에서도 청소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너무 많고, 서로 업무의

중복이 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청소년 사업이 대상중심의 사업이어서 연령에 따라 그 대상이 되므로 사실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청소년 사업에 관련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특정 국제기구가 설립되면 오랜 기간 존속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인류의 식량난 해소를 목적으로 FAO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언제 모든 인류의 식량문제가 해결되어 그 기구가 문을 닫을지는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류의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그 범위가 국제화되므로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AIDS 문제, 핵무기, 다국적 기업의 발달에 따른 국제적 문제, 신종 국제범죄의 횡행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보다 더 복잡해지고 장기화됨에 따라 임시로 생겨난 국제기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설기구로 되는 경우가 많다.

나. 사업 내용과 이슈의 다양성

청소년 관련 사업의 내용은 청소년들과 관련한 이슈만큼이나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가장 활발한 성장기에 있으므로 생리적인 면, 심리적으로 전환기에 있으므로 심리적인 면,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으므로 경제적·사회적인 측면, 빈곤, 보건, 남녀 평등, 사회참여 등 이슈가 너무나 다양하다.

다. 국가간 여건 및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상이한 접근방안

UN 회원국간에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회원으로 하는 ESCAP 회원국 간에도 서로의 여건이 너무나 다르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관심과 내륙 국가들의 관심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국가들간의 경제력이 다르므로 특정 사업의 사업비 부담이 논의될 때에 늘 논란이 되곤 한다.

인근 국가들간의 영토분쟁이 회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국내문제 또는 인근 국가와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집단행동이 국가의 후원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북한 어린이들의 기아, 대만의 UN가입 또는 국호표기 문제, 티벳문제, 카시미르분쟁, 동 티모르 분쟁 등은 아직도 UN회의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해’의 표기에 관하여 UN의 각종 발간자료 및 지도에 그간 ‘일본해 (Japan Sea)’로 표기되어온 부분에 대한 정정을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ESCAP에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문직원이 필자와 친분이 가까운 관계로 우연히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의 청소년문제가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의 청소년문제들과 같을 수 없듯이 우리나라와 일본 청소년들의 이슈가 라오스나 캄보디아와 같을 수는 없다. 또한, 종교나 문화의 차이에 따른 청소년문제의 인식차이가 예상외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즉, 나라마다 청소년들의 문제가 다를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대처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UN기구에서 이를 다룰

때에도 국가마다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그 간 UN등에서 논의된 청소년문제의 많은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슈가 아닌 제3세계 또는 국민소득 1000불 내외의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차지하고 있음은 우리나라도 책임이 있다.

라. 청소년관련 선언문의 비강제성

전문가회의 또는 실무회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회의는 회의중에 논의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회의 종료전에 보고서나 결의서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결의서에는 회원국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청소년관련 국제회의는 선언적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회의시 결의된 내용과 상반되는 정책을 일부 정부에서 채택하더라도 강제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여러가지 다른 형태로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국내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UN에서 장기간 캄보디아를 각종 UN회의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와, 현재까지도 ADB등의 국제금융기관에서 미얀마에 일체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Ⅲ. 우리나라의 참여 활성화 방안

1. 청소년관련 국제기구 전담 연구팀/
연구기관 지정·운영
2. 국제회의에의 적극적 참여
3. 국제회의 국내유치
4. 청소년분야 인력파견
5. 전문 연구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
6. 국제기구를 통한 홍보

III. 우리나라의 참여 활성화 방안

제2장에서 소개한 청소년관련 주요 UN기구의 사업에 우리나라 청소년 분야의 참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청소년 분야보다 앞서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 분야의 선례를 보고, 좋은 점은 본받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된 모델을 적용하여야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참여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분야에 적용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1. 청소년관련 국제기구 전담 연구팀/연구기관 지정·운영

우선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관련 정보·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소년 관련 업무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수없이 많고 그 업무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한 기관이나 부서에서 전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UN회의에는 주요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참여하므로 회의참가자의 주요 관심분야가 아니거나 회의 참가 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참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예는 과거에 종종 볼 수 있었으며, 현재에도 회의참가

후 회의참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은 후 문서철에 보관하는 것으로 대부분 해야할 도리를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 관련분야의 타 부처·부서에 회람하고 관련 연구소, 대학교수, 민간분야들과 자료를 공유하는 예는 아직 보기 드물다.

따라서, 정부(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지원하에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학회 및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등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청소년관련 국제기구 전담팀’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청소년관련 국제기구를 업무성격에 따라 몇 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전담기관(Focal Point)을 지정하고 전담연구자를 복수로 지정하여 관련정보를 수집·관리 및 필요시 관련기관 등에 배포토록 하는 것이다. ‘행정의 가외성이론’에 따라 각 분야별 전담기관(Focal Point)을 복수로 지정함으로써 관련자료의 누락이나 공백을 예방할 수 있다.

요사이의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정보를 싣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자료가 어느 누구에게 공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자료이거나 기관홍보성 자료가 대부분이며 또한 자주 업 데이트(Up-Date)하지 않아서 이미 정보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가 많다. 즉, 정보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는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구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를 수많은 국내기관이 국제기구들에 중복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협조를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제기구 전담팀이 있어 이들이 해당기관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회의에 중복하여 참가할 경우 관련 모든 국제기구의 활동이 누락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수년간 관련자료들이 누적되면 보다 깊이 있는(In Depth) 연구·관리 및 활동에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기구의 직원뿐 아니라 회의 참석자들과도 인간관계가 돈독해지며 이러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국가간의 협력, 지원, 교류 등이 확대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관기관(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기관의 열성이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관련 모든 기관들의 Home Page가 상호 연계되고 안내·홍보됨으로써 필요한 기관·사람은 어느 곳으로든지 전담기관(Focal Point)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서비스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국제회의에의 적극적 참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UN등 국제기구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회의에 참여하여 왔다. 이러한 국제회의를 성격별로 크게 국제회의와 세미나형의 회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 회의형태 (Format)가 다르므로 회의참가자의 역할도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General Assembly, Commission, Conference, Committee, International Meeting 등의 이름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살펴보면, 이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가 참석하며 회의참석자명단 (List of Participants)이 사전에 작성·배포되는, 매우 격식을 갖춘 회의이

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보다는 사전에 실무자회의(Working Group Meeting), 소위원회(Sub-Committee) 등 여러 형태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확인하고 회의 의제에 관한 각 회원국의 입장을 발표하며, 회의종료 전에 선언문, 의결서(Declaration) 또는 회의보고서(Draft Report)등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회의 그 자체보다는 회의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회원국간의 협정체결, 고위 책임자간의 협의 등의 활동 및 사교(Social Activities)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해당분야의 남·북한 고위담당자가 함께 참석한 경우 당사자간 비공식회의(Informal Meeting)를 통해서 어떤 주제에 관한 상호입장을 확인하고 협조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회의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직이 포함된 대표단이 파견되며, 외교적인 활동을 주된 목표로 한다.

국제회의의 다른 형태로는 Meeting, Seminar, Workshop, Symposium 등의 이름으로 개최되는, 직접 관련되는 일부 회원국만이 초청되는 세미나 형태로서 회의 참가자에게 교육의 목적이 있으므로 주로 분야별 전문연사가 초청된다. 여기서는 참석자명단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배석자(Observer)등 누구나 회의주제와 관련한 의견이나 경험을 발표할 수 있으므로 회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회의는 우리나라 해당분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참가율이 높지 않으며, 비록 참가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거나 언어상의 문제 등으로 회의 및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해당분야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구성이 임박

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대표선정이 임무 수행능력보다는 연공서열, 순번제 내지는 위로출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회의시 토론에 가담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해당의제가 논의될 때 준비된 원고나 한두 장 읽고는 자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조만간 해외출장의 기회가 다시 주어질지 회박하므로 쇼핑과 관광에 열을 올리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즉, 3S 라고 일컬어지는 Smile (대화 및 토론에 참가하기보다는 웃음으로 대신), Sleeping (회의장내 의자에 앉아서 눈뜨고 기술적으로(?) 조는 것), Shopping (회의 참가후 공항에서 가장 큰 선물가방)은 답습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꼴불견이다. 또한, 출장 전일까지 밀린 업무처리를 위해 일하느라 회의자료는 비행기안에서 읽어 보았노라는 용감한(?) 경우도 더러 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만큼 개인의 목적이 아닌, **업무수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원의 선정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분야의 경우는 국제업무가 국제교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므로 국제회의와 관련된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즉,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청소년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국제관련 업무인 경우, 가장 추진하기 쉽고 누구나 참가하고 싶어하는 선진국 연수, 동남아시아 국가 순회방문, 교류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정부간 교류, 청소년캠프 참가사업 등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소위 청소년분야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들이 청소년을 모아 깃발(?)을 들고 다른 나라를 방문하지는 않는다. 즉,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는 청소년분야 국제업무의 핵심을 청소년들을 모아 단체로 여러 나라를 인솔해 다니는 후진국형 교류사업이 아

년, 제도개선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값싸고 쉽게 해외를 다니면서 배우는 선진국형으로 정부정책을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

3.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우리나라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될 때 이를 준비하고 참가하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회의유치국 (Host Country)의 경우 개최기구(Organizer)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회의유치시 회의장소확보 및 준비, 각종 회의기자재 준비, 회의안내 및 지원, 해외참석자 교통편 제공, 환영 및 송별만찬, 관련분야 시찰, 국내참석자 참석조치 등과 함께 개최식 환영사는 물론이고 가끔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이런 회의가 개최될 경우 별다른 비용부담 없이 회의참석이 가능하므로 해당 분야에서 많이 참가하여 도움을 받고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국제회의의 준비와 절차진행 등에 익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된다. 1999년 11월과 2000년 5월의 두차례에 걸쳐 필자가 서울에 유치하고 주재한 ESCAP Seminar의 경우만 보더라도 상당기간 홍보활동을 펴고 많은 관계기관에 초청장을 보냈지만 실제 참석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물론 참석자들로부터는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그들에게 UN기구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국제회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회의산업육성예관법률'을 제정하여 199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2000년에는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100

개 국내개최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에 발맞추어 청소년분야도 국고나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국제회의 유치에 위한 예산을 과감히 확보하여 관련기관·단체에 지원, 청소년분야의 국제회의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분야의 국제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청소년분야 인력파견

청소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의 사업과 활동을 가장 잘 파악하고 상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가 인력교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활용되고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고 청소년분야에의 적용방안을 논의해 본다.

가. 전문가 파견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근무형태로는 우리 정부의 예산부담으로 전문인력을 국제기구에 파견시키는 소위 NRL (Non- Reimbursable Loan basis) Expert를 들 수 있다. 이는 국제기구에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하는데 해당기구의 요청에 따라 현지대사관을 통하여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및 해당부처의 협의를 거쳐 책임자를 선정하여 2-5년간 근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인력지원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10여년 전부터 경제부처를 비롯한 일부부처에

서 실시해 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국제기구 등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해당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거나 실무자들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과장급 이상의 고급인력이 대부분이다.

일부기구에서는 한국정부 파견요원의 언어능력이 낮고, 상위 직급이어서 업무를 담당시키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업무에 관계시키지 않고 있으며 파견자는 오히려 이를 즐기며(?) 개인이 선호하는 사회활동에 열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제기구 전문가 파견을 일부 기관에서는 책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어학능력이 부족한 직원들의 연수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매우 곤란하지만, 자녀들에게 대학입학 특례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가 악용되어서는 더욱 곤란하다. 다행히 최근에는 파견된 요원들이 전문지식과 해당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업무를 책임감 있게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많은 기관에서 추가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제기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해당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언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를 해당분야의 정부기관, 민간단체, 연구소 등에서 엄선하여 파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분야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기구를 선정하고 이들과 협의하여 이들 기구에서 우리 외교채널을 통해 요청하는 것과,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고, 책임자를 정부,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선정·파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국고에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수 년전에 필자를 포함하여 당시 청소년국에 근무하고 있던 일부 뜻 있는 젊은 사무관들 사이에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어 청소년육성기금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분야 전문가 해외파견사업'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윗분(?)들의 동의와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무산된 적이 있다.

나. 정규직원으로 근무

한국사람이 국제기구에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지는 약30여년이 지났지만 초기에는 몇 명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졌으며, 국가별시험 (National Competitive Examination)에 의거 우수인력이 선발된 것은 수년에 불과하다. 하여튼 이들이 곳곳에서 나름의 몫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최근 우리 외교통상부에서도 한국인들을 국제기구에 많이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관계기관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인력교류의 다른 형태로는 우리나라의 예산 부담으로 파견하는 JPO를 들 수 있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언어능력을 갖춘 유망한 인력을 UN기구에 장기간 근무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UNDP를 비롯한 관련기구에 파견시키고 있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교통상부의 재원으로 지원되므로 문

화관광부의 협력하에 외교통상부의 JPO사업에 청소년 분야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라. Volunteers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UNDP에서 추진하고 있는 Volunteers사업에 대학(원)에서 청소년분야를 전공한 인재를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도 협의해 볼 수 있다. 다만, 근무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근무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오해와 어려운 여건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

마. Intern

최근의 또 다른 근무 형태는 Intern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국제대학원 등에서 학생을 단기간(2-6개월) 자비부담으로 UN기구에 근무시키고 해당기관의 평가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실시되고 있다. 물론 개인이 직접 UN기관에 신청하여 상호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하기도 한다.

이는 최근 UN기구에서 UN Reform의 결과 정규직원이 줄어들어 일손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소년분야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원)과 해당기구가 협의하여 자비부담으로 1학기씩 순번으로 지원 근무토록 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실제 현장교육을 겸하게 하는 방안도 잘 개발·발전시키면 매우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5. 전문 연구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기구의 모든 사업은 전문 프로젝트를 통해서 추진되므로 이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우리나라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Donor Country), 연구자 (Consultant)로 참여하거나, 수혜 대상국으로 해외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UN기구의 청소년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보자. ESCAP의 경우, 우리 외교통상부에서 매년 US\$700,00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ESCAP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외부지원 사업비 (Extra Budget)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Korea-ESCAP Cooperation Fund)에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4-5월경 ESCAP과의 회의 (KECF Meeting)를 통하여 사업 10여개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기금이 한번도 ESCAP의 청소년분야 사업에는 지원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을 개발하여 외교통상부를 통해 ESCAP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적극 협력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전문분야의 경우 컨설턴트를 임명하여 전문자문이나, 연구, 조사 등을 의뢰하고 이러한 결과를 회의시 발표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동안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UN기구와의 협력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후진국 전문가에 비하여 자문비용이 비싸고, 국제언어(영어 또는 불어)를 원활하게 구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많지 않으므로 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통계자료작성을 위해서나 외국 컨설턴트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서 단기간 조사요원이나 연구보조요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UN의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에게 우리를 적극 알려야 한다.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의 정책과 사업을 알리고, 우리 청소년관련 연구기관, 대학, 청소년 단체의 활동과 함께 우수한 인력을 그들에게 알려야 추후 우리의 전문경험과 지식을 그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편지, e-Mail, 전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UN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경우는 이제는 쉽지 않지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기관에 적극 알려서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UN본부의 '청소년기금'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 UN본부의 청소년 분야 사업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청소년관련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UN본부와 접촉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다.

6. 국제기구를 통한 홍보

또한, 국제기구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해당기관과 사업 등을 홍보할 경우 홍보효과를 수 백배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우수한 사업이나 성공사례 중에서

UNEP의 사업취지와 부합하는 사업을 UNEP에 홍보할 경우, UNEP 와의 교류 및 관계설정은 물론이거니와, UNEP에서 이를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자체 홈페이지에 실을 경우 이는 전세계 60억 인구를 대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지만, 개발원 홈페이지에만 있을 경우 이를 열어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IV. 정책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 정책제언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IV. 정책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 정책제언

이상으로 활성화방안을 정리하여 보았는데 이러한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계자들의 국제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인 변화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절실하다. 최근, NGO들의 국제기구 활동에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정부기관의 참여활동이 주종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대부분 기능이 직접적으로든 국제기구의 활동을 통해서든, 세계각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담당분야 국제기구의 활동과 세계각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정부 대부분의 부서는 아직 다른 나라와 담을 쌓고 있다.

물론, 많은 정부부처가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해당분야의 국제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지만 해당분야의 전문능력과 언어능력을 모두 갖춘 전문인력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또한 전근대적, 전래답습적인 업무추진 방식으로 현대의 급변하는 세계추세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우선 필요한 전문인력을 공직개방으로 민간에서라도 총원하고, 자체교육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둘째, 정부 부처간 및 부처내의 수평적 협력을 강화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정부부처개편과 업무조

정이 완벽하게 되어있어도 부처간 및 부서간 업무중복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청소년 업무는 거의 모든 부처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중복이 심하다. 따라서 평소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필요한 정보·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급변하는 국제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직적 통합은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수평적 협력은 형식적·의례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호협력과 관련정보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제회의장에서 대표들간에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청소년분야가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제회의 공용어인 영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자가 업무의 전문성과 언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도 하여야 되지만,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청소년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인재가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이번 연구는 한국의 청소년분야와 UN기구를 연계시키는 1단계 과제이므로 청소년 관련 주요 UN기구(14개)의 직접적인 해당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나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든 국제기구의 청소년관련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보

다 효율적인 참여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기에 제시된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관별 가능한 대안의 선정, 우선순위 책정, 장·단기별 계획수립 등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만 효과적으로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하여튼, 그동안 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단체가 영세하고, 청소년분야의 재원이 부족하며, 활성화된 역사가 일천한 점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와 유사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이 일어나고 또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한국청소년개발원(1999), 개원 10주년 기념 연구성과 모음집, 한국청소년개발원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RURAL YOUTH". 20 July 2000. Online. <http://www.fao.org/ruralityouth/>. 30 July 2000.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YOUTH AGAINST HUNGER*. Rome: FAO, 1999.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bout ILO". 15 July 2000. Online. <http://www.ilo.org/>. 20 July 2000.
-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Youth Information Network". 11 July 2000 Online. <http://www.un.org/esa/socdev/unyin/>. 20 July 2000.
- United Nations(1997). *THE UNITED NATIONS YOUTH AGENDA,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New York: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ORGANIZATION, About UNICEF". Online. <http://www.unicef.org>. 21 July 2000.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KOREAN COMMITTEE FOR UNICEF". Online. <http://www.unicef.or.kr>. 21 July 2000.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Discover UNDP". Online. <http://www.undp.org/>. 20 July 2000.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SIA AND PACIFIC". Online. <http://www.escap-hrd.org/>. 24 July 2000.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1999). *ANNUAL REPORT, 23 April 1998 - 28 April 1999,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FICIAL RECORDS 1999, SUPPLEMENT NO 19*.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1999). *1999 ESCAP HRD Award, Theme: HRD for Youth Empowerment*. Bangkok: 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1998). *ANNUAL REPORT, 1 May 1997 - 22 April 1998,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FICIAL RECORDS 1998, SUPPLEMENT NO 20*.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1998). *Asia and the Pacific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Prospects for Social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1998). *IMPLEMENTATION OF THE AGENDA FOR ACTION ON SOCIAL DEVELOPMENT IN THE ESCAP REGION, INFORMATION KIT*.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1997). *Review of the Youth Situ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in Asia and the Pacific*,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Youth Coordination Unit". 19 October 1999. Online. <http://www.unesco.org/youth.htm>. 25 July 2000.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1999). *Editions UNESCO Publishing 1999*, Paris: UNESC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1999). *LIST OF PUBLICATIONS 1998-1999*. Bangkok: UNESCO PRINCIP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1996). *Celebrating diversity, Cultivating development, Creating our future together*, Bangkok: UNESCO IN ASIA AND THE PACIFIC.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Activities and Services". 30 March 2000. Online. <http://www.undcp.org>. 21 July 2000.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1999). *About the Regional Centre Drug Situation Activities Information, UNDCP*, Bangkok: UNDCP Regional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1999). *Regional Drug Abuse Update - July 1999, UNDCP*. Bangkok: UNDCP Regional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About UNFPA". Online. <http://www.unfpa.org>. 17 April 2000.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1999). *Adolescent Reproductive and Sexual Health, Catalogue 1999 No.2*, New York: UNFPA.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1999). *Population in the 21st Century, UNFPA and Agenda 21*. New York: UNFPA.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1998). *THE STATE OF WORLD POPULATION, THE NEW GENERATIONS*. New York: UNFPA.
-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About UNAIDS" Online. <http://www.unaids.org/>. 27 July 2000.
- United Nations Volunteers Programme. "About UNV". Online. <http://www.unv.org/>. 22 July 2000.
- World Health Organization. "About WHO". 27 July 2000. Online. <http://www.who.org>. 29 July 2000.